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공동체 의식 특성과 변인들의 효과 연구

## Aspects of the Community Sense and the Effects of Variables on It in Rural Married Immigrant Women

양순미\*  
Soon Mi Yang

###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identifying the effect of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community sense in rural married immigrant women and investing its aspects. The following 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the women in religion or with higher life satisfaction in rural regions have a high probability of belongs to the group developed a strong sense of community. Second,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consciousness of community participation ( $\beta=.55$ )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on the level of community sense in rural married immigrant women, followed by the women's self-esteem ( $\beta=.24$ ), and the positivity in agricultural participation ( $\beta=.09$ ). Third, the consciousness of community participation highly correlated with the positivity in local society participation ( $r=.36$ ).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self-esteem and local society participation are important to improve the women's community sense in rural areas. Therefore we should be focused to develop the plans improving the women's self-esteem and social participation.

---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e-mail: ysm@korea.kr

주요어(key words): 농촌(Rural), 여성결혼이민자(Married Immigrant Women), 공동체 의식(Community Spirit), 자아존중감(Self-esteem)

## 1. 문제제기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의 자질이 비록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하긴 하나,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시민의 자질과 관련된 중요한 항목으로서 공동체의식 함양을 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적 개념의 공동체는 단순히 지역성, 집합적 성격을 의미하기보다 ‘함께’라는 정서적 측면을 함축하며(Mannarini & Fedi, 2009),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 연대감 등을 내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공과를 공유하며 공존의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심리적인 반응으로 낯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특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체 의식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소속해 있는 공동체의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함으로써 서서히 형성되어 가는 것으로서 획득되는 것이며 학습되는 것으로 인식된다(이혜영, 1997). 그래서 Rousseau나 Mill은 공동체의 참여과정을 통하여 책임있는 사회적, 정치적 행동이 개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증가하거나 참여를 통해 시민의식과 윤리성 발달이 가능하다고 하여(이승종, 1993 재인용), 공동체 의식의 형성과정에서 사회참여가 지니는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농촌지역에 결혼이민해 온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있어서 농촌 지역은 낯선 장소로 인식되며 그들에게 농촌주민으로서의 자질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공동체 의식 함양이 새로운 발달과업으로 부과되게 된다. 그런데 공동체 의식 함양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참여에 있어서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26.77%가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지역사회 교육이나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양순미, 2010),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의 실태 및 특성에 다소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의 정도나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첫째,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의 실태 및 특성을 분석하고 둘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 수준에 작용하는 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민국에 대한 사회화의 과정을 공동체 의식을 통해 규명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2.1. 공동체 의식의 개념 및 구조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의 자질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공동체의식 함양을 들고 있는데(최영아, 2005), 일반적으로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결속과 관련된 집합의식 또는 그 집단 전체의 공통된 의식을 말한다.

그러나 공동체의식의 개념 및 구조에 대한 정의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여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공동체 연구의 수행되어진 초기에 Hillery(1955)는 공동체를 일정한 지

리적 영역에서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집단으로 보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로 지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 연대감을 제시하였다(이혜영, 1997 재인용). 그러나 최근 급격하게 발달한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등으로 인간을 둘러싼 환경들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재구성됨에 따라 공동체의 지역성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즉 현대적 개념의 공동체는 단순히 지역성, 집합적 성격으로 묘사하기보다 '함께'라는 정서적 측면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Mannarini & Fedi, 2009).

이렇게 공동체 개념이 지역성 중심에서 사회적 관계, 상호작용, 유대 등으로 전환되면서 공동체 의식의 개념 구성에 있어서도 지역적 특성의 요소가 소멸해 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Sarason(1977)은 공동체 의식의 기본적 성격을 다른 사람과의 유사성 인식, 다른 사람과의 상호의존성의 인정, 그들로부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하거나 주는 것에 의해 이 상호의존성을 유지하려는 의지, 보다 큰 의존할 만한 그리고 안정된 구조의 부분으로의 느낌으로 정의하였다(Obst & Smith 외, 2002 재인용). 즉 Sarason은 공동체 의식의 개념에 지리적 요소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관계 및 조직의 개념을 강조하였다(Mannarini & Fedi, 2009). 한편 McMilan과 Chavis(1986)에 의하면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이 소속감을 가지며, 구성원이 타인이나 그룹의 일부라는 느낌, 그리고 구성원의 요구는 함께이기 위한 그들의 헌신을 통해 충족될 것이라는 공유된 믿음이다. Davison과 Cotter(1989)에 의하면 사람들과 그들의 지역사회 간의 강력한 애착심을 함의하는 개인적인 감정이다.

본 연구에서 농촌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은 농촌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주민자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Sarason(1977)의 정의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과의 유사성 인식, 다른 사람과의 상호의존성의 인정, 그들로부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거나

주는 것에 의해 상호의존성을 유지하려는 의지, 보다 큰 의존할 만한 그리고 안정된 구조의 부분으로의 느낌으로 정의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 2.2. 공동체 의식의 접근이론

공동체 의식에 관한 관점은 사회심리학적인 접근, 지역사회 운동적인 접근, 지역사회계획적인 접근 이론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심리학적 접근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일정한 지역 내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다는 전제하에서 인간관계의 변화 및 발전 과정을 사회심리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의 형성과정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 대하여 인간의 본성은 주체적인 것이어서 사회성을 지니기에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주체적인 본성이 사회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그 본성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수정은 타인과의 수정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수정은 한번의 교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교류를 통해서만 안정된 사회성을 지닌 자아가 형성되어 다른 사람과의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한다(김남선, 1992; 김경준, 1998에서 재인용).

박순영(1984)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은 경험에서 출발하여 관념을 형성하고 다음의 구체적인 경험까지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게 되는데, 공동체 의식은 이와 같은 경험에 의해서 구성된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의 구조는 사회성이 미분화된 제1단계에서 주체적 자기성찰의 제2단계, 공동체 의식의 유지에 필요한 제3단계로 발전한다. 제1단계를 사회화 과정이라고 하며, 이 단계에서는 자아를 중심으로 의식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게 된다. 제2단계는 분별력의 단계로서 자기성찰을 수행하여 자신의 정신적 태도를 설정하는 단계이며 초기 사회화 과정

에서 획득된 사회성에 기초하여 자신의 위치를 확정하고 일관성 있게 지속시키는 단계이다. 이때부터 인간은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는 정신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며 자신의 삶의 구체성에서 이기적으로 설정된 가치와 행위양식과 태도를 일반화시킨다. 제3단계는 제2단계에서 형성된 공동체 의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교정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로 일반정보 매체, 연수, 재훈련기관 등 비형식적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 등을 보급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현실에 대한 만족과 이해가 어느 정도 성취되면 공동체 의식의 형성과정 초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기성을 계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Maclver(1924)는 공동체를 심성적 활동에 의한 결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은 관심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공동체는 보다 거대한 심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 그 자신이 서로 서로에 쓸 새 없이 관계해 나가는 바로서의 인간 심성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심리적인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들과 다른 것은 그것이 기계적으로 혹은 외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기화된다는 점에 있다고 한다. 인간은 통찰이나 본능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추구하거나 그 자신이나 타인을 실현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를 통해서 서로가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김경준, 1998 재인용).

지역사회 운동적 접근은 삶의 현장인 지역사회에서 야기되는 문제 또는 그로 인해서 파괴되는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려는 자구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운동(박서호, 1993)에 의하여 공동체 의식이 바로 이러한 운동의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지역사회 계획적 접근은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개선 및 조성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거나 촉진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생활시

설과 환경정비계획, 사회적 평등과 건진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심리학적 접근에 기초하여 공동체 의식이 사회화 과정의 일환으로 일정한 지역 내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전제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심리학적 접근에 의하면 지역사회활동은 공동체 의식의 형성을 매개하는 중요한 도구라 할 수 있다.

### 2.3.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찰

현재까지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들은 비교적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인간관계의 변화 및 발달 과정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박순영, 1984), 공동체 의식수준 관련변인 연구(김경준, 1998; Glynn, 1981; McMilan Chavis, 1986), 지역사회 결속력 수준에 대한 탐색적 연구(강철희 & 홍현미라, 2002)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의 수준이나 관련변인을 연구한 연구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들이(박재숙, 2010; 이형하, 2005; Glynn, 1981; McMilan & Chavis, 1986 등)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추론할 수 있는 비교분석적 혹은 경험적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농촌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 관련변인을 설정하는 준거가 되고 있다.

우선 이러한 추론은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여러 구조개념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McMilan과 Chavis(1986)의 구성요소를 통해 가능해지는데 이들의 구조개념은 첫째 하위요소들의 요인구조가 불안정하다는 점, 둘째, 그들의 연구는 단일차원에 대한 고려 즉, 인간간의 상호관계만을 중시했다는 점, 셋째, 참여가 공동체와 활동에 긍정적으로 관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참여의식에 관한 문제를 간과했다는 점이 문제

로 지적된다(이나영, 2009). 이와 관련하여 김나영(2003)은 지역사회참여활동이 참여의식을 높여주는데, 이는 참여자들이 지역사회참여활동 과정에서 참여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되고 지역사회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험하는 가운데 참여를 통한 변화와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됨으로써 참여의식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Rousseau는 참여과정을 통하여 책임있는 사회적, 정치적 행동이 개발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Mill은 참여를 일종의 공익학교로 보았으며 참여를 통해 시민의식과 윤리성 및 지적능력의 발달이 가능하다고 하였다(이승중, 1993 재인용). Glynn(1981)에 의하면 공동체 의식의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은 예상된 공동체 거주기간, 공동체 만족 정도, 공동체에서 이름(first name)을 부를 수 있는 이웃의 수였다. 이형하(2005)는 공동체 의식 영향 요인을 성별·연령·학력·주관적 경제수준·동거세대수와 같은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지역구분·주택소유형태 등과 같은 주거특성 관련변인, 지역사회 인지도·지역사회문제 심각도·지역사회서비스 만족도·지역사회참여도와 같은 지역사회태도 관련 변인, 지역사회주민 관계와 같은 지역사회 참여변인으로 구분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있어서 지역사회활동이 갖는 의미 및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Peterson, Speer와 McMillan(2008)은 개인적 능력에 대한 자기의 인식(효능감)이 공동체 의식과 정적인 상관관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박재숙(2010)은 자아존중감이 공동체 의식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적인 연구들이 제시하는 결과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참여활동 유형별(농업활동, 지역사회활동, 취업활동) 활동경험 여부, 향후 사회참여활동 유형별(농업활동, 지역사회활동, 취업활동) 활동 참여의 적극성, 지역사회 참여의식, 사회참여에 따른 보상 필요성, 자



아존증감 변인을 중심으로 이들 변인이 농촌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위와 같은 변인들을 통해 공동체의식에 작용하는 요인들을 규명하려 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의 접근이론 중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공동체 의식이 사회화의 과정의 일환으로 일정한 지역 내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으로서 자아의식이 관계된다는 견해에 근거한 것이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농촌 남성과 결혼해서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는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결혼이민자로서 이들 국가는 2007년 통계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출신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비율을 비교하여 선정한 것이다.

조사는 2008년 8월 25일부터 9월 9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계통추출에 의해 선정된 전국 187개 농촌생활지표 조사마을 중 전국 9개 도, 46개 시·군 50개 마을을 재계통추출하여 해당 마을과 인근 마을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 중에 분석 자료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한 10여 부의 응답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중국인 여성결혼이민자 91명,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 74명, 필리핀인 여성결혼이민자 77명, 베트남인 여성결혼이민자 86명, 캄보디아인 여성결혼이민자 54명의 자료가 수집되어 분석에 이용되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자료를 이용해서 50명의 농촌생활

지표조사 현지 모니터들이 해당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필리핀인 여성결혼이민자, 베트남인 여성결혼이민자, 캄보디아인 여성결혼이민자는 각각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록하는 식으로 조사하였다.

〈표 1〉에 의하면 조사대상인 여성결혼이민자의 평균연령은 일본이 41.71, 중국이 35.04, 필리핀 33.95, 베트남 25.25, 캄보디아 24.51세였다. 남편과의 평균 연령차는 일본이 약 3.7세로 가장 작은 반면 캄보디아는 약 18.5세로 가장 컸다. 이것은 농촌지역의 중국·일본·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양순미, 2006a)와 유사한 양상으로서 농촌지역의 중년기 국내결혼 부부의 평균 연령차이가 약 3세이라는 점(양순미 & 정현숙, 2005; 양순미 & 유영주, 2002)을 고려해 볼 때 중국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 부부는 비교적 높은 연령차이를 보이며,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경우 이러한 연령차이가 보다 극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은 전문대학을 중퇴한 수준으로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수준인 한국인 남편의 학력에 비해 높았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거의 중학교를 중퇴하거나 졸업한 수준으로서 한국인 남편들의 학력 수준보다 낮았으며, 중국의 경우 한국인 남편들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표 2〉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유형은 중국인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경우 2세대 핵가족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본·필리핀·베트남은 3세대 확대가족, 캄보디아는 부부가 시부모를 모시는 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3세대 확대가족의 비율이 39.73%, 2세대 핵가족이 35.34, 부부가 자녀 없이 시부모를 모시는 유형이 14.25, 부부 단독가구유형이 8.22 순이었다.

〈표 1〉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평균 분석

내용	연령			학력		
	여성결혼 이민자	남편	paired t-test	여성결혼 이민자	남편	paired t-test
	M(S.D.)	M(S.D.)	M(S.E)	M(S.D.)	M(S.D.)	M(S.E)
출신국가						
중국	35.04(9.78) <sup>B</sup>	44.87(7.79) <sup>BA</sup>	-11.67(.45)  t값 : -25.98***	3.75(1.17) <sup>B</sup>	3.86(0.97) <sup>A</sup>	0.22(.09)  t값 : 2.37
일본	41.71(5.46) <sup>A</sup>	45.44(5.71) <sup>A</sup>		4.68(0.87) <sup>A</sup>	3.95(1.08) <sup>A</sup>	
필리핀	33.95(6.76) <sup>B</sup>	44.45(5.03) <sup>BA</sup>		4.93(1.28) <sup>A</sup>	3.70(0.90) <sup>A</sup>	
베트남	25.25(3.82) <sup>C</sup>	42.60(5.68) <sup>B</sup>		3.51(0.95) <sup>BC</sup>	4.00(0.84) <sup>A</sup>	
캄보디아	24.51(3.89) <sup>C</sup>	43.00(7.76) <sup>B</sup>		3.15(0.97) <sup>C</sup>	3.85(0.91) <sup>A</sup>	
전체	32.41(9.09)	44.16(6.47)		4.09(1.25)	3.87(0.96) <sup>A</sup>	
F값	63.35***	2.44*		19.43***	0.69	
내용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수준	생활수준	농사일 시간		가사일 시간
				농번기	농한기	
	출신국가	M(S.D.)	M(S.D.)	M(S.D.)	M(S.D.)	M(S.D.)
중국	78.56(53.85) <sup>B</sup>	3.97(1.58) <sup>A</sup>	3.06(1.05) <sup>B</sup>	5.66(3.34) <sup>A</sup>	2.66(2.35) <sup>A</sup>	7.68(6.05) <sup>B</sup>
일본	133.30(49.87) <sup>A</sup>	3.85(1.00) <sup>A</sup>	2.92(1.04) <sup>B</sup>	6.05(3.70) <sup>A</sup>	2.74(1.59) <sup>A</sup>	8.66(5.86) <sup>B</sup>
필리핀	70.52(41.37) <sup>B</sup>	2.97(1.01) <sup>B</sup>	3.24(1.04) <sup>BA</sup>	6.27(4.01) <sup>A</sup>	3.83(2.87) <sup>A</sup>	11.74(7.41) <sup>A</sup>
베트남	31.32(18.46) <sup>C</sup>	2.74(0.96) <sup>B</sup>	3.18(0.72) <sup>BA</sup>	5.95(3.28) <sup>A</sup>	3.54(2.93) <sup>A</sup>	9.88(5.93) <sup>BA</sup>
캄보디아	15.76(10.56) <sup>D</sup>	2.68(1.01) <sup>B</sup>	3.43(0.95) <sup>A</sup>	5.15(2.66) <sup>A</sup>	2.91(1.90) <sup>A</sup>	8.18(6.08) <sup>B</sup>
F값	86.87***	21.40***	2.59*	0.61	1.58	4.61***

\*  $p < .05$ , \*\*  $p < .01$ , \*\*\*  $p < .001$  A, B, BA 등은 duncan test에 의한 사후검증 결과를 의미함

〈표 2〉 여성결혼이민자의 종교 및 가족형태

여성결혼이민자의 종교							
내용	가톨릭	개신교	통일교	불교	없음	기타	계
통계	n(%)	n(%)	n(%)	n(%)	n(%)	n(%)	n(%)
출신국가	중국	0(0.00)	13(16.46)	0(0.00)	12(15.19)	47(59.49)	79(100)
	일본	1(1.39)	2(2.78)	66(91.66)	1(1.39)	2(2.78)	72(100)
	필리핀	36(49.31)	7(9.59)	19(26.03)	3(4.11)	3(4.11)	73(100)
	베트남	3(3.80)	7(8.86)	1(1.27)	39(49.37)	25(31.65)	79(100)
	캄보디아	1(1.89)	5(9.44)	2(3.77)	33(62.26)	10(18.87)	53(100)
계	41(11.52)	34(9.55)	88(24.72)	88(24.72)	87(24.44)	18(5.06)	356(100)
X <sup>2</sup>	454.70***						

		가족유형					
내용		부부	부부+자녀	3세대 확대가족	부부+시부모 (형제)	기타	계
통계		n(%)	n(%)	n(%)	n(%)	n(%)	n(%)
출 신 국	중국	10(11.24)	43(48.31)	25(28.09)	10(11.24)	1(1.12)	89(100)
	일본	1(1.37)	33(45.21)	34(46.58)	1(1.37)	4(5.47)	73(100)
	필리핀	6(8.00)	28(37.33)	29(38.67)	11(14.67)	1(1.33)	75(100)
	베트남	5(6.02)	18(21.69)	43(51.81)	15(18.07)	2(2.41)	83(100)
	캄보디아	8(17.78)	7(15.56)	14(31.11)	15(33.33)	1(2.22)	45(100)
계		30(8.22)	129(35.34)	145(39.73)	52(14.25)	9(2.47)	365(100)
X <sup>2</sup>		59.32***					

※ \*\*\*p<.001 %는 행간 백분율을 의미함

### 3.2. 척도

#### 3.2.1. 종속변인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는 척도는 Sarason(1977)의 개념적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최영아(2005)의 4문항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73이었다.

#### 3.2.2. 독립변인

##### 3.2.2.1. 공동체 의식에 작용하는 변인

사회참여활동 유형별 경험여부는 농업활동, 지역사회활동, 취업활동 각각에 대해 친정국가 또는 한국에서 이의 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김이선 등(2008)의 척도를 보완·수정하여 농업활동은 참여행태를 묻는 단일문항의 명목형으로 체크하게 한 뒤 경험이 있다와 없다로 재구성하여 이용하였다. 취업활동은 활동한 경험이

있는 활동내용을 단일문항의 명목형으로 체크하도록 한 뒤에 있다와 없  
다로 재구성하여 이용하였다. 지역사회활동의 내용 및 종류는 한국청소  
년 연구(2004)를 인용하여 구성하였으며, 경험한 활동을 보기에서 골라  
체크하도록 한 뒤에 분석과정에서 이를 재구성하여 참여여부 등의 변수  
로 이용하였다.

향후 사회참여활동 유형별 참여 적극성은 각각의 활동 유형에 대한 참  
여의 적극성 또는 의지를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측정하는 척도  
는 전재은(2006)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각 활동유형별로 단일문항의  
서열형으로 구성하였으며, 모두 '전혀 참여 안 함'에서부터 '적극 참여함'  
까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형별로 사회참여 활동태  
도가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지역사회참여 의식은 공익을 위하여 공동체와 관련된 일이나 의사결정  
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이다. 이것은 최영아(2005)  
의 연구에서 이용된 4문항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  
렇지 않다(1)에서 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척도  
의 Cronbach's  $\alpha$ 는 .73이었다.

사회참여에 따른 인정 및 보상의 필요성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은 김영  
희(2006)의 연구에 이용된 서열형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전혀 필요치 않  
다(1)에서부터 매우 필요하다(5)까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갖는 개인적인 감정 상태로서 자  
기 자신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관심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의 측정을  
위해서는 '나는 좋은 자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나는 쓸모없다는 느낌이 든다' 등의 항목  
으로 구성된 Rosenberg(1965)의 10문항 척도를 이용하였다.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정말 그렇다(5)까지의 5점 Likert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70이었다.

### 3.2.2.2.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등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농촌생활에 대한 총체적인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Cantrill(1965)의 척도(조완규, 1993 재인용)와 양순미(2006; 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단일차원의 단일문항으로 구성하였다.<sup>1)</sup> 척도는 '매우 불만족(1)'에서부터 '매우 만족(5)'까지 5점 서열형으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농촌생활에 대한 총체적인 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생활수준은 소득 및 의식수준 정도 등을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마을 내에서의 상대적인 지위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양순미와 유영주(2002)의 연구에서 Warner(1949; 유영주, 김경신, & 김순옥, 2000 재인용)의 6계층의 지위특성 지표(I.S.C.: Index of Status Characteristics)를 이용하여 6점 Likert로 구성된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어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는 양순미 & 유영주(2002)의 6점 Likert 척도를 이용 또는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기타 연령, 학력, 동거하는 가족원 등은 양순미 & 유영주(2002)의 척도를 이용하여 개방형으로 질문한 뒤 분석과정에서 재조합하여 활용하였다.

---

1)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어 온 이래 이를 측정하는 척도의 단일차원과 다차원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단일차원의 척도는 각 변수들의 개념에 내포된 다양한 현상을 하나로 축약해서 제시함으로써 매우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시켜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일화된 점수를 통해 각 개념이 지니는 의미를 함축적이고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단일차원의 척도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문항으로 구성될 수 있다. 다차원 척도의 경우, 동일한 척도라 할지라도 연구자나 척도가 이용되는 대상에 따라 하위요인이나 문항구성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일관된 경향을 추론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양순미, 2008).

### 3.3. 자료의 분석

총 382명의 자료가 SA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공동체 의식의 수준이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ANOVA, t-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또한 공동체 의식에 작용하는 변인들의 관계성이나 영향력 정도를 규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 4. 연구결과 및 논의

### 4.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공동체의식 실태 및 관련 변인의 특성

#### 4.1.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공동체 의식 수준 및 특성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 수준은 평균 14.31~15.61로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장 낮고 필리핀인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참여활동별 경험여부에 따른 공동체 의식 수준의 차이는 세 가지 유형 모두에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종교 유무에 따른 공동체 의식 수준의 차이도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공동체 의식수준이 더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3〉). 한편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도시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최영아(200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평균 12.12~12.43의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4.1.2.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은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의 특성

〈표 4〉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 수준을 평균값(14.92, S.D. 2.95)을 중심으로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이분화 하여 각각의 독립변인들이 공동체 의식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종교가 있는 집단이,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았다는 김경준(198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구체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때에 더 강한 귀속감을 가지게 되는 데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여성결혼이민자의 공동체 의식 수준 및 관련변인에 따른 차이

내용 출신국가	공동체 의식	내 용		공동체 의식		t-test
	M(S.D.)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중국	14.92(2.93) <sup>A</sup>	변인 구분		M(S.D.)	M(S.D.)	
일본	14.31(2.40) <sup>B</sup>	사회참여 활동별 경험여부 에 따른 공동체 의식수준	농업활동	14.82(2.97)	14.97(2.95)	-0.46
필리핀	15.61(3.24) <sup>BA</sup>		지역사회활동	14.85(2.99)	15.08(2.91)	-0.75
베트남	14.89(3.07) <sup>BA</sup>		취업활동	14.58(2.83)	15.05(2.99)	-1.38
캄보디아	14.80(2.92) <sup>BA</sup>	종교유무에 따른 공동체 의식 수준		14.71(2.53)	14.99(3.06)	0.84
F값	1.86					



〈표 4〉 여성결혼이민자의 공동체 의식의 수준이 높은 집단의 특성 분석

변인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은 집단
	B(β)
가족 수	-0.13(-0.09)
이민여성 교육수준	0.25(0.17)
남편의 교육수준	-0.09(-0.05)
이민여성 연령	-0.04(-0.17)
남편의 연령	0.07(0.23)
가사 및 육아활동 시간	-0.00(-0.01)
한국거주기간	0.00(0.00)
한국어 수준	0.08(0.06)
종교유무(1=있음)	1.06(0.27)**
농촌생활만족	0.58(0.29)**
생활수준	0.14(0.09)
intercept	-5.24*
-2Log L $x^2$	27.17**
Score	25.38**
concordant	72.4

※ \* $p < .05$  \*\* $p < .01$  \*\*\* $p < .001$

#### 4.1.3.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 관련 변인의 특성

지역사회참여의식은 평균 13.13~13.73으로 출신국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향후 농업활동 참여의 적극성과 향후 지역사회활동 참여의 적극성은 각각 평균 3.15~3.41, 3.58~3.97로 출신국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그러나 향후 취업활동 참여의 적극성은 평균 3.78~4.20으로 필리핀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장 적극적인 반면 캄보디아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적극정도는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참여에 따른 인정

및 보상 필요성 인지 정도는 평균 3.00~3.67로 중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장 높은 반면 필리핀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36.06~39.12로 중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장 높은 반면 필리핀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표 5〉).

〈표 5〉 농촌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 관련 변인 특성

내용 출신국가	지역사회 참여의식	향후 농업활동 참여 적극성	향후 지역 사회활동 참여 적극성	향후 취업활동 참여 적극성	사회인정 및 보상 필요성	자아 존중감
	M(S.D.)	M(S.D.)	M(S.D.)	M(S.D.)	M(S.D.)	M(S.D.)
중국	13.50(3.30) <sup>A</sup>	3.21(1.27) <sup>A</sup>	3.58(1.05) <sup>B</sup>	3.96(0.96) <sup>BA</sup>	3.67(1.24) <sup>A</sup>	39.12(6.20) <sup>A</sup>
일본	13.73(2.37) <sup>A</sup>	3.15(0.99) <sup>A</sup>	3.77(0.90) <sup>BA</sup>	3.86(0.81) <sup>BC</sup>	3.62(0.88) <sup>A</sup>	36.54(5.16) <sup>B</sup>
필리핀	13.71(3.88) <sup>A</sup>	3.40(1.35) <sup>A</sup>	3.97(0.79) <sup>A</sup>	4.20(0.85) <sup>A</sup>	3.00(1.51) <sup>B</sup>	37.92(5.04) <sup>BA</sup>
베트남	13.13(3.44) <sup>A</sup>	3.41(0.84) <sup>A</sup>	3.82(0.98) <sup>BA</sup>	4.12(0.70) <sup>BA</sup>	3.27(1.28) <sup>BA</sup>	36.06(5.03) <sup>B</sup>
캄보디아	13.31(3.19) <sup>A</sup>	3.38(1.02) <sup>A</sup>	3.85(1.03) <sup>BA</sup>	3.78(1.03) <sup>C</sup>	3.55(1.12) <sup>A</sup>	36.20(6.21) <sup>B</sup>
F값	0.48	0.90	1.88	2.70*	4.06**	4.62***

※ \* $p<.05$ , \*\* $p<.01$ , \*\*\* $p<.001$  A, B, BA 등은 duncan test에 의한 사후검증 결과를 의미함

#### 4.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공동체의식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에 작용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먼저 회귀분석 가정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1.94이며, 각 변인들의 분산확대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s)을 확인한 결과 모두 1.3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투입된

변인들은 .01~.66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sup>2)</sup>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에 대해 관련 변인들은 전체모델의 48%를 설명하고 있었다(〈표 7〉).

회귀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인은 지역사회참여의식( $\beta=.55$ )이며, 이어서 자아존중감( $\beta=.24$ ), 향후 농업활동참여의 적극성( $\beta=.9$ ) 순이었다. 즉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참여의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향후 농업활동참여 의지가 적극적일수록 그들의 공동체 의식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지역사회참여의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향후농업활동참여의 적극성이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는 지역사회참여활동이 참여의식을 높여주며(김나영, 2003), 참여과정을 통하여 책임있는 사회적 행동이 개발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증가한다는 Rousseau의 주장이나 참여를 통해 시민의식과 윤리성 발달이 가능하다는 Mill의 주장(이승중, 1993 재인용)과 일치한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참여활동 과정에서 참여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되고 지역사회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험하는 가운데 참여를 통한 변화와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데서 비롯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는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박재숙, 2010; Peterson, Speer, & McMillan, 2008)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이 담보될 때 공동체 의식의 확대가 가능함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2) 투입된 변인들 간에 상관이 .70 이하이면 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김인호, 1983).

한편 농업활동 경험 여부, 지역사회활동 경험 여부, 취업활동 경험 여부, 향후 지역사회활동참여 적극성, 취업활동 참여 적극성, 사회참여에 따른 사회보상 필요성 변인은 농촌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에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6〉 농촌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 관련 변인들의 상관성

변인	공동체 의식	사회 참여 의식	자아 존중감	향후농업 활동 참여 적극성	지역사회 활동 참여 적극성	취업활동 참여 적극성	사회참여 인증 및 보상 필요 정도
공동체 의식	1.00						
지역사회참여의식	.66***	1.00					
자아존중감	.40***	.29***	1.00				
향후농업활동 참여 적극성	.23***	.21***	.07	1.00			
지역사회활동 참여 적극성	.30***	.36***	.17***	.16***	1.00		
취업활동 참여 적극성	.28***	.31***	.26***	.13**	.39***	1.00	
사회참여인증 및 보상 필요 정도	.10	.17***	.10*	.01	-.02	.01	1.00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7〉 농촌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에 작용하는 변인 특성

변인	B(β)
자아존중감	.12(.24)***
한국 농업활동 경험(없다=1)	-.33(-.05)
한국 지역사회활동 경험(없다=1)	-.39(-.07)
한국 취업활동 경험(없다=1)	.22(.03)
향후 농업활동참여 적극성	.22(.09)*
향후 지역 사회활동참여 적극성	.09(.03)
향후 취업활동참여 적극성	.03(.01)
사회참여에 따른 사회보상필요성	-.04(-.02)
지역사회참여의식	.49(.55)***

intercept	2.91**
F값	34.88***
R <sup>2</sup> (Adj R <sup>2</sup> )	.48(46)
Durbin-Watson D	1.90

※ \* $p < .05$ , \*\* $p < .01$ , \*\*\* $p < .001$

## 5. 요약 및 결론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의 자질이 비록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하긴 하나,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시민의 자질과 관련된 중요한 항목으로서 공동체의식 함양을 들고 있다.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농촌 지역은 낯선 장소로 인식되며 그들에게 농촌주민으로서의 자질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공동체 의식 함양이 새로운 발달과업으로 부과되어지게 된다. 본 연구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의 실태 및 특성,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결과에 의하면 첫째, 종교가 있거나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여성결혼이민자는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구체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때보다 높은 귀속감을 갖게 되는 데서 비롯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농촌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에는 지역사회참여의식 변인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이것은 지역사회활동 참여의 적극성 변인과 가장 높게( $r = .36$ ) 상관되어 있었다. 또한 공동체 의식에는 향후 농업활동 참여의 적극성 변인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사회참여활동이 참여의식을 높여주며(김나영, 2003), 참여과정을 통하여 책임있는 사회적 행동이 개발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공

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증가한다는 주장(이승중, 1993 재인용)에 비추어 볼 때, 농촌주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인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위해 이들이 교육 및 봉사 등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한 실적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인증 또는 보상제도와 연계하는 식의 사회활동을 확충하는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에는 자아존중감 변인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박재숙, 2010; Peterson, Speer, & McMillan, 2008)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이 담보될 때 공동체 의식의 확대가 가능함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농촌여성결혼이민자들의 농촌주민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서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참여 교육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에 작용하는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사회참여활동 관련 변인과 자아존중감 변인으로 제한하여 접근하였다. 향후 사회적 지지 정도가 공동체 의식에 작용하는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나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 특성을 비교 규명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 참고 문헌 ■

- 강철희, & 홍현미라. (2002). 지역사회결속력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8, 43-77.
- 김경준. (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나영. (2003). *지역사회참여활동의 정치교육효과 지각에 관한 연구-대학생들의 정치 지식, 기능 및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남선. (1994). 지역사회운동을 통한 공동체 형성 모델; 실증적 사례. *자치행정*, 75(6), 17-26.
- 김옥순. (2006). 서울시 거주 중·고생의 공동체 의식 조사연구-인터넷 이용형태와 사회적 상호작용 및 연대감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7(3), 215-234.
- 김영희. (2006).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인정 및 보상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이선, 정해숙, & 김영주. (2008).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발전방안연구*. 농림부.
- 박서호. (1993). *지역사회운동을 통한 공동체의식 형성 방안,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공동체 의식 함양방안*. 대전: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
- 박순영. (1984). *공동체 이론과 공동체 윤리, 한국인의 윤리관II(78-115)*.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조완규. (1993). *농민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재은. (2006).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순미.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중심*. *농촌사회*, 16(2), 151-179.
- 양순미. (2010).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사회참여활동태도가 미치는 효과*. *농촌사회*, 20(1), 233-264.
- 양순미, & 유영주. (2002). *농촌부부의 배우자에 대한 역할 기대, 역할수행평가, 역할상이성이 결혼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75-91.

- 유영주, 김정신, & 김순옥. (2000). *신가족관계학*. 교문사.
- 이나영. (2009). 공동주택단지과 공동체 의식과 외부 공간 구성.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승중. (1993). *민주정치화 시민참여*. 서울: 삼영.
- 이형하. (2005). 대도시지역 노인과 농촌지역 노인의 공동체 의식 관련 요인 비교 연구. *노인복지연구*, 28, 231-254.
- 이혜영. (1997). *공동체적 사회연대 구축을 위한 품성교육의 방향*. 교육사회학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영아. (2005). 지역사회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과 참여의식 함양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Davidson, W. B., & Cotter, P. R. (1989). Sense of communi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7, 119-125.
- Glynn, T. J. (1981).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Measurement and application. *Human Relation*, 34, 789-818.
- McMilan, D.,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a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 Mannarini, T., & Fedi, A. (2009). Multiple sense of community: The experience and meaning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7(2), 211-227.
- Obst, P., & Smith, S. G. (2002). An Exploration of SOC, Part 3 dimension and predictors of psychological SOC in geographical communities. *Community Psychology*, 30(1), 119-133.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논문투고일: 2011. 8. 3

1차수정일: 2011. 9. 2

게재확정일: 2011. 9. 20